

CBS가 만든  성경 채널
알림바이블 **대본집**

Ep.090

용서의 말씀

(마태복음 18:1-22, 마가복음 9:33-37,
누가복음 9:46-48, 10:25-37, 요한복음 8:1-11)

하루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어요.

**“우리 중에서는 이 베드로님이 가장 잘 낚시!
그건 너희도 인정하겠지?”**

**“무슨 소리아? 성품으로 보나 뭐로 보나
이 야고보가 가장 잘 낚시!”**

**“나 마태는 세리 출신이오!
그만큼 계산머리가 좋다는 게지!
내가 가장 잘 낚시 않았을까? 헤헤.”**

결국 제자들은, 예수님께 여쭙어보았어요.

“예수님,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인가요?”

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.

“요한아, 저기 있는 어린 아이를 데려오거라.”

한 어린 아이가 영문도 모른 채 제자들 앞에 섰어요.

**“잘 들어라. 너희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코
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.
그러므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
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란다.”**

제자들은 뜨끔 할 수밖에 없었어요.
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통해 ‘겸손’을 강조하신 건데
서로 자기가 더 높다고
말다툼을 한 자신들이 부끄러워진거죠.

예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어요.

**“만일 너희가 다른 사람과 다투게 된다면 먼저
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거라.
그러면 친구 하나를 얻는 것과 같단다.”**

**“예수님, 그러면 잘못된 사람은 몇 번까지
용서해줘야 하나요? 일곱 번 정도 용서하면 될까요?”**

**“일곱 번 까지가 아니라
일곱 번씩 일흔 번 이라도 용서해 줘야 한다.
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무한히 용서해 주시지 않느냐?”**

제자들은 깨달음을 얻었어요.
이렇게 예수님께서서는 용서하는 행동을
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죠.

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
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어요.
그 때 평소 예수님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던
몇몇 사람들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왔죠.
여인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껴 울고 있었어요.

**“예수 선생, 이 여인은 자기 남편에게
아주 부도덕한 행실을 했습니다!
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이런 여인은 돌로
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생의 생각은 어떠신지요?”**

**사실 이들은, 예수님을 곤란에 빠뜨릴 계획이었어요.
만약 예수님께서서 모세의 율법대로 여인을 돌로 치라
말씀하신다면?**

**용서와 자비에 대해 가르치셨던
예수님의 평소 모습과 어긋나는 것이었죠.**

**반대로 여인을 돌로 치지 말라고 하신다면?
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다는 죄목으로
고소를 당할 수도 있었어요.**

이 난처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였을까요?

**“너희 중에, 죄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먼저
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거라.”**

**잠시 정적이 흘렀어요.
기세 좋게 여인을 끌고 왔던 자들은
더 이상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죠.
살아오면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고
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할 수도 없었으니깐요!**

**이제 아무도 여인에게 돌을 던지거나
손가락질 할 수 없었어요.**

“에헴 에헴”

모여있던 사람 중 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더니
결국 예수님과 여인만이 자리에 남게 되었죠.

“여인이여, 너를 비난하던 자들이 다 어디있느냐?”

그제야 여인은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어요.

“주님... 아무도 없습니다... 흑흑.”

**“그래. 나도 너의 죄를 믿지 않을 것이다.
이만 돌아가거라.
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라.”**

여인의 눈에서 감격과 안도의 눈물이
터져나왔어요.
자신을 용서해주신 예수님에게서
크나큰 사랑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.

그리고 또 어떤 날은, 한 율법학자가
예수님을 찾아왔어요.
그 또한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는 예수님을 시험해서
자기가 돋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.

**“선생님, 제가 어찌 하면 영원한
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?”**

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

**“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돼 있느냐?
읽어보았을 것 아니냐?”**

**“율법에는 온 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
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기록 돼 있습니다!”**

**“너의 대답이 옳다
그렇게 행동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.”**

그러자 율법학자가 거들먹거리며 말했어요.

**“아. 이웃을 제 몸처럼이요?
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?”**

그러자 예수님께서
율법학자에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.

**“어떤 사람이 혼자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여행을 가고 있었다.
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나 모든 것을 빼앗기고
길가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지.
그런데 마침,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단다.”**

**“오호! 하나님께 봉사하는 제사장이라면
그 자를 도와주었겠지요?”**

**“아니다. 제사장은 쓰러진 사람을 보고 오히려
그를 피해 반대편 길로 돌아갔단다.
그리고 잠시 후에는 한 레위 사람이 그 길을 지나게 되었지.”**

**“오호! 모세의 율법을 익힌 레위인이라면
그 자를 돕지 않았을까요?”**

**“그 레위인도 쓰러진 자를 피해 길
반대편으로 돌아갔단다.
그런데 이번엔 한 사마리아 사람이
그 길을 지나게 되었지.”**

율법학자는 속으로 생각했어요.

**‘이방 민족의 피가 섞인 기분 나쁜 사마리아 사람?
그럼 볼 것도 없지!
원수 같은 사마리아 녀석이라면 분명 그냥 지나갔을거야..’**

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반대였어요.

**“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
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자를 여관으로 데려다 주었다네.
어떤가, 자네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
이웃이라 생각하나?”**

**“그.. 그야 물론 자비를 베푸는
사마리아 사람이겠지요...?”**

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

“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하거라.”

**율법학자는 더 이상 잘난체 할 수 없었습니다.
혈통이나 신분에 상관없이
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라는 걸
가슴 깊이 깨달을 수 있었으니까요.**

그는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대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!